

세상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든 놀라울 게 없지

수리아의 검-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노인 (7)

무니는 놀란 얼굴로 노인을 쳐다보았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어.”
“아마 내가 봤던 것은 이 책의 필사본일 게다. 듣기론 추가된 부분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다더구나.”
“하지만 어차피 나는 읽지도 못했을 걸. 다 고대어잖아. 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 영감의 오두막은 불타버렸으니까...”

무니는 말끝을 흐렸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나?”
노인은 위로하듯 말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다. 별들의 반짝임도 이제 막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 책을 좀 더 읽어보려구나.”

무니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책장을 휘리릭 넘겼다.
“첫 부분은 거의 다 신들의 이야기인가 봐.”

노인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조용히 풀밭 사이를 오가던 아상티 역시 그들의 걸에 조용히 와 섰다. 무니는 책을 소리 내 읽기 시작했다.

“당신이 살았던 곳에서 어떤 이름을 가진 신이 어떤 내용의 신화를 가진 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 왔는가. 아마 당신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신화가 존재하는지 알게 된다면 깜짝 놀랄 지도 모른다. 아직도 학자들의 노력이 신화 자체를 연구하기 보다, 그 발굴에 기울여지고 있을 만큼 그 양은 방대하다. 그러나 당신이 학자가 아닌 이상, 그 모든 신화를 다 알기란 매우 힘들며 그다지 유용한 일도 아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방대한 양이라고 해도 하나의 신이 수많은 이름을 가진 것처럼 신화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래에 소개하는 이야기 역시 그 중의 하나로 당신은 이 신들의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아래의 신화에 등장하는 이름들이야말로 그 신들의 원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최초의 이름일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 기록 역시 매우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기록된 것이라 첫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다.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원본은 결국 구할 수 없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신들의 이름과 그 탄생을 소개하는 신화의 첫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 하겠다.”

무니는 다시 책장을 덮으며 물었다.
“신화라는 게 정말 이렇게 많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단다. 세상 속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숨어있든 놀라울 게 없지.”

무니는 고개를 가웃하더니, 이내 다시 책을 펼쳤다.

“흠과 물은 태초에 하나였으나, 둘이 되었다. 이



삽화 · 김홍인

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은 완성. 그 완성에서부터 이 우주 최초의 존재가 탄생한다. 그의 운명은 세계를 창조하는 것. 그는 맨 처음 신들을 탄생시킨다. 유지의 신 비슈누와 파괴의 신 쉬바가 바로 그들. 다음으로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간을 탄생시킨다. 이윽고 세계의 거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을 때 그 존재는 창조신의 또 다른 이름, 거룩한 브라흐마로 불리게 되고 수메르 산 정상, 인간은 달을 수 없는 그곳에서 유지의 신이 그에게서 창조의 힘을 앗아가는 순간을 파괴의 신이 그를 다시 본질과 형태로 갈라놓을 때를 맡음이 기다린다. 그는 이 세계 최초의 늙은이며, 정해진 운명을 알고 있는 유일한 신이다. 뭐야? 본질과 형태? 정해진 운명을 알고 있는 유일한 신? 너무 어려워. 무니의 말투에는 불평이 섞여있었다.

“고대어를 읽을 수 있게 되면 뭐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걸. 게다가 난 비슈누나 쉬바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그 책에도 써놓지 않았나. 신들은 정말 많

은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라고.”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 어디선가 들어본 거 같은데?”

무니는 미간을 찌푸린 채 기억을 떠올리려 애썼다.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그러나 노인의 시선은 여전히 밤하늘의 별자리를 향해 있었다.

“나한테는 책 읽으라고 해놓고, 정작 당신은 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무니가 노인의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다.
“시간의 흐름을 보고 있단다. 내가 읽고 있는 책의 생명은 지금부터지. 여기서 시작해 시간을 따라 흐르고 흘러가게 되는 거야.”

“정말 그러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될까. 죽은 저 남자의 바람대로 지혜를 구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노인의 입가에 대답 대신 열은 미소가 맴돌았다.
“그러자나 이 책에 나온 이야기는 다 진짜야?”

노인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했다.

“그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니? 어떤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걸 보는 방향에 따라 진실이나 거짓으로 나뉠 수 있으니 말이야. 네 생각은 어때냐?”

“모르겠어. 어떤 방향에서 봐야하는 지도 모르겠고 말이야. 게다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방향이 있었어!”

“후후. 그래. 네 말이 맞다.”

노인은 소리 내 웃더니 다시 하늘을 바라봤다. 주위는 이제 글을 읽기 힘들 정도로 어두워져 있었다.

“이제 여기에서 떠나는 게 좋을 거 같구나.”

“이 책 좀 더 읽어보면 안 돼? 딱 한 부분만 더.”

“글썽이 보이겠니?”

무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 아직은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너석, 어렵다고 불평하더니! 아무튼 좋다. 그러면 부분만 더 읽어보려.”

무니는 글자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최대한 밝은 곳을 찾아 자리를 잡은 다음,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

다.

“그리고 이 신화는 이어서 브라흐마가 수많은 신들을 더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리는 내용으로 전개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그 신들에게 주어진 각각의 이름은 인간과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할 것이다. 언젠가 당신은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많은 신들과 실제로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물론 그들 중에는 당신을 돕게 될 자비로운 신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의 신들이라면 당신에게 모든 신들이 공정하지는 않다는 교훈을 줄 것이다. 혹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의 원래 이름, 바로 최초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이름이야말로 그들의 본래 모습이니까 말이다. 이걸 당신이 힘껏 맞서고 있는 상대가 단지 상대의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그 그림자들이야말로 당신이 수리아의 검을 찾는 과정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될 것이다. 수리아의 검?”

무니의 눈이 휘둥그레 커졌다. 아상티 역시 갑자기 커진 무니의 목소리에 조금 놀랐는지, 낮게 퐁퐁 소리를 냈다.

“도대체 이 책은 뭐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리아의 검을?”

무니는 노인에게 달려들 듯 다가갔지만 노인은 무니의 손을 꼭 붙잡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무니는 순식간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벌써 세 번째 느끼는 기분이었다.

한편, 잠무의 하늘은 화창했다. 햇빛은 눈부셨고, 바람 끝은 부드럽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오래 간만의 맑은 날씨를 느긋하게 즐기고 있었다. 그때 그 거리에 한 소년이 등장했다. 그는 바람을 맞으며 급하게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었다. 날씨와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망토를 뒤집어 쓴 얼굴은 반쯤 가려진 상태였고, 오로지 검고 반짝이는 눈동자만 보일 뿐이었다. 사람들은 소년의 망토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날리는 먼지에 잠시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그다지 큰 주의를 기울이지는 않았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정말 어딜 저렇게 계속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군.”

그는 소년과 마찬가지로 역시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저 소년은 벌써 몇 번이나 캄포를 죽이려고 했어. 이번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까? 아무튼 아주 답답한 아이야. 그것만은 분명해.”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혼자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을 즐기며 지나갔다. 그러나 그의 혼잣말은 계속 되었다. “자신이 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각성했을 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지, 가루다?”

그는 자신의 망토를 고정시키고 있는 경장 쪽을 쳐다봤다. 그건 커다란 새를 본 따 만든 독특한 모양의 물건이었다. 잠시 가만히 서 있던 그는 이윽고 무엇인가 결심한 듯, 덮어쓴 망토의 모자를 벗었다. 그러자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났다. 바로 크리슈나였다.

사찰(급)안내

- 위 치 : 경북 포항시(서포항 IC 10거리) 2차선 갓길 호조전
- 사찰 전시관 (2층 240평) 대웅전, 용왕, 산신, 지장전, 종각, 대웅공양실, 판매장 총 2,500평
- 경주, 대구, 영천 30분거리
- 일반 재가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
- 특 징 : 눈물 흘리시는 약사여래불, 국내최대 관음아귀를 안고 계신 목불 (약 250년), 3m 40cm 50여점의 크리스탈 계급불 외 희귀불상 전시 (목불위주 전시) 일시과 외벽 만다라 전시 월간 약 10여개 이상 천도제 (평균가격 : 30만원)
- 전시관은 크리스탈 전시회 등으로 약 10년간 걸쳐 조성한 주지스님 계급불로서 절대 모방이 불가능하며 참배하시는 분께서는 황홀감에 빠져드는 진귀한 작품.
- 민간방송에서 17회 방영된 바 있음.
- 총 2,500평 중 성취관 내 일체 고불상 전시시설만 받고, 대웅전, 지장전, 용왕, 산신, 대웅공양실, 종각, 땅 2,500평 무료 제공함.
- 2011년 초파일 참배인원 약 3,000명
- 가격 : 총 전시관 자금만 받고 급 안내
- 인터넷 상에서 포항 성취관 입력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 010-4504-0174

3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1년의 역사와 자산70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중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5 친절상담

상무 이강욱
☎ 010-9842-4200
과장 김상민
☎ 010-7314-2522

본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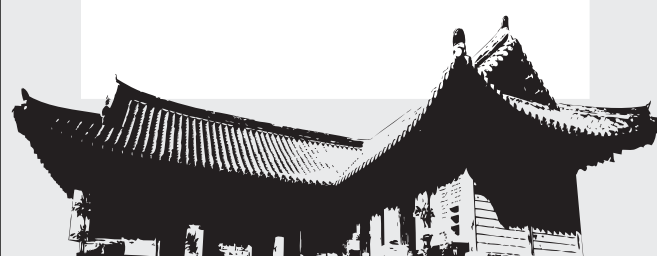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중, 개축)년도 면적
- 보험사 현장 실시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학사
- 법 명 : 법 등 (김용하)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승리 8-1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55(2001)년 1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